조폭들의 교회

(눅20:1-18)

1.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2.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3.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4.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5.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6.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7.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조폭들의 교회>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조폭은 조직폭력배를 말합니다.
폭력조직이라고 하면 집단적으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행위를 하는 조직이나 집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직폭력배는 누굽니까?
그러한 폭력조직에 소속된 무리들이 조직폭력배지요.
그래서 이 조직폭력배들이 행하는 폭력의 종류에 따라 폭력집단을 들치기 단, 날치기 단, 그리고 항만 폭력집단, 정치적 폭력집단, 또 매춘 폭력집단,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폭력집단 하나를 더 보태십니다.

‘교회 폭력집단’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조폭들이 판치는 조폭들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폭력집단은 선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집단을 말합니다.

선민들을 대상으로 무엇인가를 강탈해가는 그런 조직폭력배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에요.

분쟁이 일어난 교회에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조직폭력배를 고용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으로 보이고, 평온하게 교회생활이 진행되고 있는 교회들이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폭들이 판치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은 9절에서 18절까지 포도원농부 비유를 말씀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갑니다, 타국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에게 그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를 죽입니다.

이렇게 심부름꾼을 세 번을 보냈는데 다 죽입니다, 주인에게 포도원 소출을 주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인이 좀 더 강하게 주인의 요구하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을 존중하고 소출을 주어서 보낼 줄로 믿었는데, 웬걸 이 농부들이 이 외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 포도원이 다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속자를 죽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 구원의 역사를 빗대어 얘기하시는 겁니다마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더불어 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에요.

이들을 주님께서 바로 포도원으로 비유되고 있는 선민사회를 자기 것으로 빼앗아버리는, 주인의 종들을 죽이는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조폭들로 비유하고 계신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선민사회를 대상으로 집단적이고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교회 폭력집단입니다.
선민 폭력집단이에요.

자, 어떻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모두가 다 여호와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틀어지게 되었는가?
도대체 문제의 핵심이 뭔가?
왜 이렇게 틀어지게 되었습니까?
어차피 평생을 여호와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왜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와서 시비를 건 게, 어제 성전정화를 한 것도 포함해서 '도대체 누가 너한테 이렇게 시건방진 일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탈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인가한 권위이기에 지금 성전에서 입을 열어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인데, 이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관장하면서 모든 종교의식을 다 주관하고, 그래서 그것에 기준해서 선민을 가르치며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해가지고 선민사회 조직의 정점을 이루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이 사회가 다 움직여져 가고 지배되고 이끌려가고 있던 상황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는 '지금 산헤드린 공회를 정점으로 하는 선민사회 내에서 그 누구도 너에게 이렇게 공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한 적도 권한을 인가하고 허락한 적도 없지 않느냐? 한 마디로 아웃사이더와 같은 존재인데 지금 이런 행동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틀어지게 된 이유가 뭔가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대제사장노릇을 하고 있고, 서기관과 율법사로서의 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장로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선민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에서부터 권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도 거기서 계보를 이어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고 서기관으로서 율법사로서 장로로서 그 신분을 확증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선민사회 안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가르침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연결되어 계십니다.
비교해보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확정하고 인정해주고 허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행동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연결되어서 인정하고 허락하고 계십니다.

둘을 비교해봅니다.
선민사회에서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야 할 것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조직상의 정점의 기관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관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결을 소망하고 열망하고 살았다면 예수님과 이렇게 등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으로 예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말씀과 행동과 역사 앞에서 감격하며 찬송하고 기뻐할 일이죠.
틀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직이 대체시켜 버린 거예요.
조직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조직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조직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라는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가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시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헤드린 최고의결기관이 선민들을 대상으로 행사한 폭력의 실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보여 지듯이, 포도원 소출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빼앗은 게 무엇일까요?
선민들에게 이들이 행한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분이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 반드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뒤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요,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요체는 하나님께 마음과 힘과 뜻을 다 드리도록 선민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이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이 실상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연결되도록 돕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민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흡혈귀가 빨아들이듯이 빨아먹어버립니다.
산헤드린을 정점으로 하는 유대사회를 통솔해나가는 그 조직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자기들이 다 빨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러한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 받으려면 제사를 지내라, 성전세를 제대로 내라, 이렇게 해놓고는 전부 산헤드린 공회를 정점으로 하는 그 선민사회의 조직을 강화 유지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 쏟도록 격려하고 이끌어갔던 겁니다.
이게 바로 조직폭력배가 되어서 행사하는 불법폭력행위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거예요, 주님 눈에는 그런 폭력배로 보인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주인의 외아들까지도 죽여 버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들 것으로 강탈하려는 그런 폭력배로 보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많은 능력과 그 많은 기적과 그 심오한 가르침과 그 권세 있는

복음전파의 능력을 가지시고도 선민 유대사회에서 형성되어 있던 그 조직의 기득권층의 고수하려고 하는 힘을 깨지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안 깨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유대교회에서 기독교가 새롭게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대교가 깨져서 변한 게 아니라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참 개탄할 일이에요.
기독교가 생기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공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의 넓은 제국 판도에 공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동, 서 교회로 분열하고 이렇게 중세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조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했던 그 무지막지한 폭력적 오류를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가톨릭교회가 똑같이 다시 범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조직의 기득권층이 조직을 고수하려는 그 힘을 깨지 못하고 개신교라는 게 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개신교가 만들어지는데 개탄할 일인 거예요, 또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는 각 개교회가 그렇게 하나씩하나씩 다 조직을 갖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각 개교회가 조직폭력배가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을 정점으로 당회와 제직회와 여러 분과, 이렇게 조직들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선민들, 교인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연결하도록 도와야 될 교회가, 전부 교회조직을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고, 큰 예배당을 짓고, 교회라는 조직의 비대해짐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인들의 모든 힘과 뜻과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이처럼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하던 그 일을 개교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교인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할 일은 뭐냐 하면, 무슨 직책을 맡길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것이 부가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 붙잡고 이 세상에 마음을 쏟고, 뜻을 가지고 힘을 들이고 있는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 죽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쏟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인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채로 살아가도

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행해야 될 프로그램은 교회 내에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이 프로그램이고, 아내, 남편, 자식의 신분이 프로그램이고, 직장인의 신분이 프로그램이고, 다 세상 사는 삶이 프로그램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만 가지의 직책을 다 주고, '이런 직책을 받았으니 충성 봉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타이틀을 내걸고는 교회라는 조직이 흡혈귀처럼 선민들의 뜻과 마음과 힘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생활 충실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에 나가면 하나님과 동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에너지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중임을 담당한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스위스 출신의 독일 가톨릭 신학자 중에 '한스 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튀빙겐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튀빙겐대학에는 개신교신학부와 가톨릭신학부가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수로 일하시다가 51세에 교황무오설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게 됩니다.
'교황이 뭔데 도대체 무오하다는 거냐?' 그래서 교수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르틴 루터 이래 가장 가톨릭에 강력한 적이 바로 '한스 큉'이라는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가톨릭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책이 두껍지는 않아요, 전체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조직으로 설립하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사제가 있고, 이런 식의 조직으로서 교회를 만들려고 해보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전하신 예수운동은 종말론적 운동이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계명에 의거한 교인들 간의 교제가 있을 뿐이지 이런 조직을 만들려고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계속 가톨릭교회 조직을 때립니다.

그런데 이게 가톨릭교회 조직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의 개교회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폭력집단이에요.
교인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교회조직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자꾸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폭력배이고 오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농부들과 똑같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폭력집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깨져요.
죽어도 안 깨져요.
예수님도 유대교 조직의 기득권층을 못 깼어요, 루터도 못 깼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개교회의 조직들, 당회와 제직회와 각종 분과 위원회로 이루어진 이 조직을 깨고 원상대로 예수운동의 본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고 마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자부심도 있어요.
순복음교회가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니라, 제일 큰 교회니까 표본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여의도에 예배당이 있고 옆에 큰 빌딩들이 있고, 그 빌딩 안에 모든 교인들의 교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의 가족사항, 나이, 성별, 몇 교구 몇 교구, 이런 행정부처가 다 있으면서 교인들을 관리하고 교회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사람들은 전부 나는 순복음교회 교인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의도순복음교회만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라는 소속감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경계선으로 봤을 때 그 마음의 안쪽 영역으로 천국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속은 마음이 전부 지금 천국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은 모든 개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늘로 연결되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소속은 지금 여기서 하늘인 거예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아니고,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나는 여기서 그냥 하늘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라는 조직 안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새로운 교회가 생길 수밖에 없죠.
유대교에서 로마가톨릭이 생겨났고, 로마가톨릭에서 개신교가 생겨났고, 이제 개신교에서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야 될 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런 바른 교회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천 년 전에 주님께서 선민사회의 지도층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민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강탈하는 강도로 표현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의 바른 모습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